

병원표준화 사업에 대한 소고

김 정 애
(인제의대부속 백병원 간호부장)

금번 병원협회에서 대거 실시한 병원표준화사업은 예년의 병원심사와는 달리 몇가지 특별한 성격을 띤 것으로써 병원의 합리적인 관리에 역점을 둔 혁명적인 사업이었다. 이는 현시대적 관점에서 강력히 요구되어지는 확실하고 안전한 의료보장적 차원에 근접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써 이상적인 표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병원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취약점을 발견, 자각케 하고 이에 따른 진지한 토의로써 성장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안을 구상케함으로써 병원발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본인은 간호원으로서 병원사회에서의 절대 필수요건인 간호관리부분이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 비로소 그 중요성이 자각됨으로써 새로운 한부분으로 신설되어 현 간호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간호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 데 대하여 이번 사업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본다.

간호의 질 문제는 진료의 질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써 간호의 향상없이 건전한 의료의 향상이 있을 수 없음을 자명하며 따라서 병원간호사업에의 관리가 무엇보다 필수요건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의 병원표준화사업은 대단

히 획기적인 것이었고 고무적인 것이었지만 일차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금번에 제시된 모든 문제점들을 유합하여 적절하고 우수한 모형으로 완성하여 차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본사업이 자체에서의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심사체제로 발전하여야겠다는 마렵으로 이번 심사에 직접 심사위원으로서 또 심사에 임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몇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먼저 他國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질을 파악하는 심사도구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한국 화시켜야 한다. 의료 및 제반 병원관리에 있어서 아이디알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번에 무리를 가져 온 몇가지 항목에는 수정을 가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심사위원 자체에서는 주어진 문항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가져야 하며 더불어 실무자에게 확실한 방향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심사를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표준화사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주어진 문항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겠다. 이러한 것은 의료윤리에 기반을 두고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의료

관리자로서는 필히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포부를 지님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심사중 제철이 요구되는 각종 업무 및 직무에 대한 기술서는 금번에 처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문서화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실정을 말해주는 것으로써 해가 거듭될수록 보강되어지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간호관리에 대한 항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대단한 진보였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 간호부서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노력이 대의적으로 입증되고 또한 외적요구가 명백해짐에 따라서 간호부서 자체에도 활기를 불어

넣게 되었고 또한 병원관리자의 적극성있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됨으로써 간호관리문제가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병원표준화사업은 5개년계획의 대사업으로써 현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조직과 질을 표준화하고 개선 육성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만족하게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의료관리의 기틀을 이루게 될 것으로 의심치 않으며 또한 의료인 전원은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모쪼록의 대사업이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업무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연 실

(연세의대부속 원주기독병원 간호부장)

오늘날 근대화 병원의 사명은 윤리적 진료를 시행하는데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병원의 목적은 의료인만큼 보다 질적 진료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의 완비와 이에 따라서 진료수가의 합리화, 정확한 의무기록의 확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병원표준화사업은 의료윤리의 정립과 병원관리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다. 이 거대한 사업에 우리 간호부문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은 참 기쁨이요,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함을 느

끼며 병원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인으로서서는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얻게된 소중한 시기였었다. 심사위원 위촉장을 받은 후 본인 나름대로 심사요강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심사자의 자격보다 나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 간호부문에서 담당할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부문과 중앙공급실, 보청부문, 급식부, 편

■ 특집 : 병원표준화사업과 간호업무의 표준화

덴과 세탁부문, 의료사회사업과, 특별진료부문, 의무기록 등 연관성있는 항목에 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했다. 병원마다 그동안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규정의 문서화 작성에 많은 노력과 추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심사과정에서 특히 간호부문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지적하면서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로는 병원 기구조직표에서 간호조직의 위치가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 간호단위의 지휘는 간호과장이 담당하나 타과에 의존된 지시를 받으며 간호부 기능 발휘와 간호단위의 대표자로써 병원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고 간호단위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의 권한이 불확실하였으며 정확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호단위 책임을 보좌하며 대행할 수 있는 감독체제가 미비하였다.

병원 발전을 위하여서는 간호 부문의 대표자가 병원 제위원회의(의무기록위원회, 구급진료위원회, 감염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도서위원회, 특수치료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예산재정위원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상의 계획을 수립하여야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간호단위의 대표자는 자신의 부당한 노

력과 성의와 열성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둘째로는 간호단위 직원을 위한 교육훈련실시 계획서는 작성되었으나 간호평가나 간호감사 활동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 결여된 점이 있었다.

간호의 질적 적합성의 검토와 평가를 위한 설정된 기준을 사용하여 현재 시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양질의 간호와 간호의 개선방법을 연구하여 간호의 질 평가를 시도하여야겠다.

끝으로 병원표준화 심사를 마치면서 병원간호의 역할확대를 위하여 병원사회속에 간호부서의 확고한 위치, 조직 구조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간호의 질문제, 간호의 과학적 평가 시도등 앞으로 많은 문제들의 검토와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며 병원표준화를 위한 간호관리지침, 병원간호행정의 원리 병원간호업무표준서설정 등을 위한 제위원회의 구성으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계에 병원표준화 심사에 간호 부문에서 더 많은 의견과 조언이 제시되어야겠고 보다 넓고 깊게 심사범위가 확대되어 병원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2